현불논단

MZ세대 포교로 미래 준비하자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2021년 조사서 종교인 40%에 불과
과반수가 무종교인… 탈종교 가속화
기성종교들 사회 비전, 실천 제시無

MZ세대 조직보다는 개인 자유 중시
스스로 사유, 성찰하는 명상 즐겨해

진우 스님 취임사서 '전법포교' 강조
전법선언, 불자 지상명령이자 생명줄
MZ위한 맞춤 포교 방법론 연구해야

코로나19의 팬데믹이 3년 동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상처를 입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 일반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소상공과 종교계, 예술계 등이라고 한다.

2021년 '한국의 신앙인 비율' (한국갤럽)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56%였던 종교인구가 40%로 급감했고, 무종교인수가 60%로 급증하였다. 20대는 '나는 종교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나타났다. 급속하게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젊은 청소년이 예배나 법회의 종교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학생회 모임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종교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탈종교화의 원인을 진단했다. 첫째, 천당과 극락, 기복적인 제사나 기도 등 전통적인 종교의 기능이 일반인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종교지도자의 도덕성 부재와 종교적 삶에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것도 신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셋째, 기성종교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를 향도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미래사회의 주역인 MZ세대가 종교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

MZ세대는 SNS와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생활한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입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한다.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여 얽매이는 구속을 거부하며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하기를 좋아한다.

MZ세대의 놀라운 현상 중의 하나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속의 성스러움(불성, 영성)을 사유하고 성찰하기 위하여 불교의 '명상 수행' 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명상과 수행' 의 강좌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여 명상을 체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상윳따 니까야〉 '화살경' 에 나오는 "같은 화살에 두 번 맞지 말자"는 화살의 비유가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에서 첫 번째 화살에 맞았다. 불자 수가 급감했다. 또 다시 준비와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또 팬데믹이 와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면 회생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가르침이 있다. 미래불교의 주인공이 될 MZ세대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성찰하는 불교적인 수행법인 명상을 선호한다니 천만다행한 일이다.

작년에 새로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하나도 전법포교, 둘도 전법포교, 셋도 전법포교"를 선언하며 종단운영의 기치를 내걸었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은 불자에 대한 지상명령이요, 불교교단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이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교단과 사찰, 모든 불자들은 마음과 힘을 모아서 지금 당장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전법포교 방법론을 연구하여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를 양성해야 한다.

21세기는 명상이 대세이다. 청소년의 수준과 일반시민의 기호에 맞춰서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적으로 명상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社說

관람료 감면, 국가 지원으로 이뤄져야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불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사회 갈등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기 이전부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왔다. 1962년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면서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법은 1967년에 제정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관리 편의상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다가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만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 5월 이후부터 전국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국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목표라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가 419억 원 예산 중 30%를 지방비로 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우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럴 바엔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역시 비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전금' 이기 때문에 지방비 배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 정산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해 관련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이중고도 예상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큰 걸음이다. 기재부의 협조를 바란다.

한 해 출가자 200명 시대 현실 되길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5년 안에 연간 출가자 200명 회복"을 목표로 걸고 출가 진흥 정책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자리는 혜일 스님이 교육원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으로 향후 5년간의 승가교육 종책의 로드맵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안팎으로 주목을 받았다.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한 혜일 스님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종단의 백년을 책임질 인재를 담아내는 종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출가자 감소문제는 '출가 절벽' 이라고 표현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1990년대만 해도 한해 4~500여 명에 달했던 조계종 출가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2008년 200명대에 들어섰다. 2017년에는 한 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부터는 100명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61명에 그치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단을 운영하고 교육기관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200명은 출가자를 유지해야 한다. 혜일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200명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인감소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기본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인원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혜일 스님은 연수교육에서 출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반영하고 행자 생활 기간 중 애로사항 상담 등에 더욱 신경 쓸 것을 약속했다. 이는 MZ세대 전법 출가 진흥 종책과도 맞닿는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에 전면전을 선언한 9대 교육원이 꺾어진 출가자 그래프에서 다시 상승곡선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탐라는 '섬나라'

제석천의 달 토끼가 인간 세상의 바다로 내려왔다. 제주의 동쪽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별방진에 이른다. 그 진성 앞에는 작은 포구가 있고, 그 바다에 토끼섬이 떠 있다. 그 섬에 문주란이 핀다.

이 토끼섬은 문주란 자생지인 천연기념물로 7~9월에 흰 꽃이 산형화서로 핀 모습이 토끼를 닮았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다. 이 꽃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쪽으로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느 태고의 조류를 따라 흐르다 북방한계점에 이르러 터를 잡았다. 꽃만이 아니라 새들은 바람을 타고 사람은 물을 건너와 제주에 터를 잡았다.

이처럼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의 옛 이름은 탐라, 탁라, 탐모라 등이다. 한치윤의 〈해동역사〉에서 동국방음(方音)에 '도(島)' 를 '섬' 이라 하고, '국(國)' 을 '나라' 라 하며, 탐 · 섭 · 담이 세 가지 음은 모두 섬과 비슷하다고 풀이했다.

즉, 탐라는 '섬나라' 이다. 탐라는 〈후한서〉 '동이열전' 과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에 주호국은 마한 서쪽 바다 큰 섬의 세력이라고 했다. 한반도 부속 도서 중에 가장 큰 제주도가 고대 주호국의 세력이라고 추정된다. 탐라가 본격적으로 사서에 등장한 것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 〈일본본기〉와 〈일본서기〉, 수나라 〈북사〉, 당나라 〈당회요〉와 〈구당서〉 등인데, 3~7세기에 경제 · 정치 · 문화에 걸쳐 주변국과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와는 언제부터 교류했을까?

〈삼국사기〉 '백제본기' 에 따르면, 문주왕 2년(476)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해 은솔로 삼았다' 고 한다. 2년 후 왕이 된 동성왕 '조' 에 "8월에 왕이 탐라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자 친히 정벌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기에 그만뒀다. 이 탐라는 탐모라다"하였는데, 이때 왕자의 관직을 받는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조' (662년)에는 "탐라국 주인인 좌평 도동음률이 항복했다. 때문에 좌평을 관호로 삼았다. 신라에 항복해서 속국이 됐다." 이후에도 탐라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교류했다. 한편, 〈구당서〉 '유인궤 열전' 에 보면, 백제 멸망 후 '백제 · 왜 연합군 잔병들이 항복할 때 탐라인도 같이 데리고 항복했다' 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탐라군도 백제부흥군과 함께 왜군과 연합해 나당동맹군에 맞서 백강 전투에서 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신라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때의 아홉 나라에도 탐라가 들어있다. 신라에서는 탐라를 속국으로 삼은 이후에도 왜, 중화, 말갈, 예맥 등과 함께 '구한' 의 하나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나당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679년에 신라가 다시 탐라를 경략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탐라국 왕세기〉에 신문왕 때(684) 탐라는 고지창을 신라에 보내 설총의 이두문자를 도입했다고 한다. 또 김헌창의 난 때(822)는 신라 귀족들 일부가 탐라로 피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탐라는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활발한 외교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한반도 삼국은 물론 모든 동아시아 국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탐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